

#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아요”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03년도에는 탱크를 몰고 2000-3000여 개의 토굴을 밀어버렸다는 것이다. 나 중에 사허에서 만난 한 핀란드인도 2년 전에 이곳을 방문하러 하였으나 출입을 막아 결국 발길을 되돌리고 말았다 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산자락을 등에 지고 서 있는 커다란 일주문 만 보이나 불학원이나 사찰이 어디 있기는 한 것인가 의아심이 든다. 입구를 지나 황량한 민둥산을 타고 돌아서 있을 보니 갑자기 입이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진다.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산등성이 마다 고만고만한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이 마치 예전 서울의 달동네를 보는 것만 같다. 이것들이 모두 스님들이 수행하는 토굴이라는 데 그 규모가 1만 여 채에 이른다 한다.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큰 불학원인 오명 불학원이다.

티베트에서는 부처님 모시는 사찰을 가장 높은 곳에 짓는다 하여 보통 산정상이나 산자락에 사찰이 자리 잡는데, 아무튼 나무하나 제대로 구경하기 힘든 이 척박한 고지에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불학원이 건설되었는지 놀라울 뿐이다. 일부러 찾아와 오지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는 이 많은 스님들 앞에 고개가 숙여졌다. 대법당에 이르니 입구에 설치된 신발장엔 신발들이 넘쳐나는데 신발수를 헤아려 보아도 1천명은 족히 넘게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안에서 여불을 드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 많은 스님들은 학원내의 스님들 중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의 스님들은 토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중이라 한다. 특히 명상수행 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전혀 만나지 않고 묵욕도 하지 않고, 머리와 중간에 끼지 않고 출입을 금하며 식사공양 외에는 오직 각자의 밀교수행에 전념한다 한다. 이곳에서 한 스님의 토굴을 방문하였는데, 워낙 토굴이 빼곡히 들어찬지라 겨우 한사람이 지날만한 골목을 통해 역시 2명 내외의 최소한의 공간만을 확보한 채 스님들은 구도의 길을 가고 있다.

넓디넓은 불학원 내에는 삼청, 서정 등 수행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물건 사는 것이 더욱 저렴하고 질도 좋아 연흥사 스님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2시간 걸러 이곳에 와서 사간다고 한다. 나무와 삼청들을 지도부가 지원을 해주기에 가능한 일이라 한다.

산 정상에는 '탄전'이라 하는 거대한 탑이 있는데 스님들과 불자들이 탑을 돌며 기원과 기도를 드린다. 이 탑 정상에는 탄트라상, 즉 남녀합일상이 모셔져 있는데 신심이 없는 이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한다. 밀교적 성격이 강한 불교종파 중에는 남녀합일을 중요시 하는 곳이 있는데, 이를 오히려 외설적 이거나 사이비적으로 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남녀합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의 차원이 것이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쾌락적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여 그것을 부정하거나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랑무스에서 만난 스님은 종파 간에 갈등이 없는 지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간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여차피 우리는 한 곳을 향해 정진하고 있으니까요. 길이 다르



## 독립의 등불 밝히는

그들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열정에 경의를...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면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에 사비를 털어서 헌신적으로 이 학교 운영에 힘쓰는 것이다. 마을에도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모두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지켜나가 언젠가는 독립의 날이 오기를 염원하기에 이렇게 작은 씨앗이나 뿌려두는 것이리라.

수많은 야크와 양 떼들이 풀을 뜯기에 여념이 없다. 마일강의 장족들은 하나 같이 이목구비가 매우 시원시원하고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거무스름하고 눈매는 번뜩인다. 때문에 아무런 말없이 시꺼먼 얼굴에 번뜩이는 눈매로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금방이라도 위태할 것 같이 무서워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에게 간단히 인사라도 하고 눈웃음이라도 지어 보이면 그들은 금세 환히 웃으며 순박함을 보인다. 장족들은 외부인일지라도 서로 마음을 트고 만나면 이내 집으로 초대하고 융성한 대접을 해준다. 마치 오래전 우리네 고향의 인심을 만 나듯 이런 그네들의 모습이 너무도 좋았다.

계빠가 사는 곳은 홍원에서 차로 30분정도 떨어진 와치상이란 곳이다. 4살, 5살의 어린 아이부터 성년이 다된 청년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반을 나눠 30여 명이 공부하고 있었고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 한다. 이곳에 교장은 비마스찬이란 젊은 스님인데, 역시 쉼다에서 수행한 후 이곳에서 계빠와 함께 티베트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한다. 이곳은 중국어, 티베트어, 그리고 탕카를 가르친다 한다. 학교 재정은 스님과 계빠가 직접 돈을 벌거나 후원을 받아서 충당한다. 계빠는 이번에 청두에서 한 달여간 탕카 작업을 한 후 돌아온 것인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바로 학교 운영에 사용된다. 계빠가 돌아온 후 이번엔 비마스찬 스님이 후원을 받으러 북경에 갈 예정이라 한다. 와치상 중심부에는 분명 제법 큰 학교가 있는 것을 목격한 나로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그곳은 중국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공식적으로 티베트어나 티베트문화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면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에 사비를 털어서 헌신적으로 이 학교 운영에 힘쓰는 것이다. 마을에

다 해서 목적지가 틀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제는 지금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 종파가 틀리고 양상이 틀리더라도 여차피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자비 넘치는 사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던가.

저 너머 산 정상에 가득 뒤덮인 타르초(부처님발품을 새긴 오색천들이 바람이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산을 내려 왔다.

### 홍위엔(紅原)에서 싹트는 작은 희망

췌다에서 마일강으로 돌아와 1박을 한 후 홍위엔을 향해 출발했다. 청두에서 마일강으로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만난 계빠는 탕카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이다. 동시에 그는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데 우리에게 복사지에 인쇄한 팸플릿을 건네주는데 거기서 사비로 운영하는 무료학원이 자금난으로 지원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헤어지면서 꼭 한번 홍위엔에 들르라는 말이 여차피 랑무스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곳이라 겸사겸사 들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를 한점 없는 하늘아래 풀 간 데 없이 펼쳐지는 이 초원은 투얼가이를 지나 랑무스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도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모두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지켜나가 언젠가는 독립의 날이 오기를 염원하기에 이렇게 작은 씨앗이나 뿌려두는 것이리라. 그들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미약한 도움을 약속했다. 개인적으로 이들이 어서 빨리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고 최소한 완전한 자치권이라도 되찾아 진정한 자유 속에서 불국토를 이루기를 바랄 뿐이다.

### 투얼가이-절을 찾은 당원들

랑무스를 가기 위해선 투얼가이를 경유해야 한다. 청두를 출발해서 지나온 도시가 모두 그렇듯이 투얼가이 역시 도로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작은 도시이다. 그 끝자락에 달라사란 절이 있다. 이곳에 새로이 지어진 박물관이 있는데 1층엔 경전을 비롯한 각종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고, 2층에는 티베트인들의 문화유산이, 3층에는 티베트불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처음에 이곳을 들어가려 하니 문이 잠겨 있고 한 스님이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오라한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왜 문이 잠겨 있는가 싶고 나중에 다시 오라는 건 또 뭔가 싶어서 절을 둘러보고는 다시 가 보니, 아까 그 스님이 이젠 들어와도 된다고 한다. 박물관을 관리하는 스님인 듯한다. 장소를 친절히 가르쳐 주고, 중요한 서적도 읽어줬다. 이때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공산당 간부들이 단채로 견학을 왔다. 땅의 지원을 받아서 박물관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 지어진 박물관을 맡고 단채로 견학을 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간부들이 티베트 사찰에 견학을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색적이다. 중국이 종교적, 문화적 유산을 관광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 드는 경향이 많지



만, 현재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그동안 감춰졌던 불교를 비롯한 종교적 열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랑조우의 오천사는 사찰 내에 놀이 기구도 있고, 성도의 조각사의 경우 출구를 통과하면 바로 동물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문수원 같은 경우는 경내에 식당과 정원도 꾸며져 있고 주변 거리에는 관광상품점, 식당, 경극극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런 면모가 다소 불경스러운 면도 있고, 소란한 점도 있지만 중국과 같이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종교를 배척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면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리라 생각한다. 사실 중국이 그 오랜 역사에 걸쳐 쌓아온 풍성한 불교적 뿌리와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내에서의 불교의 부흥의 순간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본다.

■ 동두천 중화사 주지



달라사 앞에 당칸과 같이 있는 타르초

## 담 화 문

### 귀의삼보하심고

제방의 고승대덕 크스님과 사해불자 여러분, 그리고 일붕문도와 일붕종도 여러분!

불초(不肖)한 노납(老衲)이 부덕(不德)하고 암둔(暗鈍)하여 작금(昨今)의 저의 일붕선교종 사태를 빚게 되어 정말 유감(有感)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노납은 저의 종단을 걱정하는 많은 종도와 문도들이 참여한 “일붕선교종 재건을 위한 구종 선언문”을 접하고는 저의 종단이 그 동안 정말 잘못 운행되어 왔다는 것을 통감(痛感)하고 이렇게 답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일붕선교종 재건을 위한 구종선언문에서 가히 지적한 바와도 같이 첫째, “일붕선교종 종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총회를 해산하여 종현 종법의 일부기능을 정지시킨 채 약5년간 비상종단 체제로 종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은 종도들을 우롱한 아주 잘못된 처사”라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07년 5월 18일자로 비상종단 체제를 해제하고, 앞으로 조속히 선거를 실시하여 종도들의 대의기구(代議機構)인 중앙총회를 구성하여 종현종법도 복원하고 모든 종현종법기구를 다 정상화하겠습니다.

둘째, 비상종단체제하에서의 위임되고 전결(專決)된 종정의 권한은

비상종단체제 해제와 동시에 종정에게로 환수하고 비상종단체제하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사안(事案)들 중 잘못된 부분은 새로 구성하는 중앙총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임(現任) 이 총무원장은 종현 종법을 위배하여 보임(補任)되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었기에 전체 종도와 문도들의 화합차원에서 07.5.17일자로 총무원장 직에서 해임하고, 현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전 총무원장 법철(속명 노영남)스님을 신임 총무원장서리로 임명합니다.

넷째, 07년 5월 18일 비상종단 체제 해제와 동시에 비상종단 체제하에서 사용하였던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인감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직인 그리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직인은 무효로 하고 새로운 인장을 대채 사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저의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재단의 입종 등록은 사찰재산의 헌납을 기본으로 하기에 한번 입종하면 탈종을 할 수 없지만 저의 종단의 입종은 사찰재산의 헌납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명의등록이기에 입종과 탈종은 전적으로 각 사암의 자유이며 고유권한이고, 종현 종법에 명시된 각 사암의 장건주 권한도 절대로 제약받을 수 없고, 또 각개 사찰의 재산권도 종단에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에 야기된 모은사의 사태는 전적으로 이 총무원장의 판단 착오에서 빚어진 잘못된 사태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 내지 이

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야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보고 어느 종도가 종단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이러한 사태가 다시 유발된다면 그것은 바로 종단이 자멸하는 길이기때 다시 한번 일붕종도 일붕문도 여러분에게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여섯째, 저의 종단에서 03년에 실시한 사찰 재입종 및 승니분한 신고시에 인위적으로 탈루(脫漏)가 된 사암이나 사부대중 불자들이 계신다하니 이는 정말 잘못된 정책(宗策)이라 아니 할 수 없기에 이번 기회에 화합적인 차원에서 문호(門戶)를 개방하여 다 구제토록 하여 일붕종자 재세시와 같이 종단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일곱째, 타 종단 소속 승려가 우리종단 운영에 관여하여 종단이 이렇게 잘못되는데 대하여 노납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타 종단 소속 승려가 다시는 일붕선교종 종단에 기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물론 새로 선출된 중앙총회에서 이 노납도 재신임을 문도들 하겠습니다.

불기 2551(2007년) 5월 18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봉암장연중